

사랑하는 우간다 선교 동역자님들께

계절의 변화 때문인지 우간다에서보다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계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약속에 대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듯 하네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찬양과 간증이 풍성한 동역자님의 삶과 사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박주리 선교사 졸업

안식년을 마무리 하면서,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안식년의 가장 큰 열매는 박주리 선교사의 학업 완수입니다.

우간다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난 안식년 (2005년)에 미국 미시간의 칼빈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정을 금번 안식년에 마치기 위해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학업에 매진하는 아내를 지켜보는 마음이 무척이나 애처롭고 아슬아슬하더군요.

마침내 지난 5월 21일, 기독교 교육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친 박주리 선교사의 고백입니다...**"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 사역지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의미있고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칼빈 신학교에서의 각종 강의, 세미나, 활동 등은 선교지에서 접하지 못했던 신선한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역 현장의 선교사들이 학문적 재충전의 기회가 빈약하여 지적 고갈의 우려가 있다면, 유학 현장의 젊은 인재들은 학문의 장에 밀집되어 사역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 둔감할까 염려가 되더군요. 사역과 배움의 조화로운 성장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틈나는 대로 선교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도전과 격려를 나누었던 시간들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 선교 역시 선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사역임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신나고 용기 백배의 힘을 줍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선교의 전선을 몸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함께 지키는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 소식

이번 안식년은 헤어져 있던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대학생 아들이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흔치않은 해프닝으로, **예원이**는 기숙사에 가는 대신 저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동안 떨어져 지냈던 회포를 풀며 정을 나눔과 더불어 신앙과 생활의 다방면에 걸친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 1년을 마치면서 이제 신입생의 티를 벗고 캠퍼스 생활에 정착했고, 성경공부, 찬양팀 등을 통해 신앙 생활도 나름 자리를 잡은 듯 합니다. 혼자 방에서 기타를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장차 복음과 주를 위해 유용한 일군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예찬이 학교 캠퍼스에서

예찬이도 떨어져 있었지만, 방학때 마다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시아 학생이 거의 없는 백인 위주의 학교에 다니면서, 염려와 달리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찬이도 성경공부와 찬양팀 활동등을 통해 영적 긴장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결정하여 3학년이 되는 가을학기 부터는 더욱 바빠지겠지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이제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6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GMS에서 주최하는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6월, 8월)에 참가하고, 중간 중간 가족과 친지, 교회를 방문하여 교제와 보고의 시간을 가진뒤, 9월 초쯤에 우간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이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여름 방학동안 이스라엘 키부츠에 자원 봉사중인 예찬, 예원이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2. 우간다 복귀 전까지 한국에서의 일정이 유익한 배움과 교제의 기회가 되도록
3.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4. 우간다 복귀 후의 재정착과 임할 사역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5. 예찬, 예원이의 대학생 생활 새학년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인격과 지혜가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연락처 (6월 17일 이후)

010-5241-2297